

Gary Meadors 박사, 신의 뜻을 아는 것, 6차 세션, 우리가 배운 것을 평가하기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경 신학에 대한 이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게리 미더스이고, 우리는 몇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우선, 괜찮으시다면 목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차에 있는 핸드아웃입니다. 우리는 방금 신약성서의 하나님의 뜻을 마쳤습니다. 저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잊었지만, 그 섹션에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모든 단어의 출현을 알려주는 핸드아웃을 드렸습니다.

50개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설명란에 가서 문맥이 신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을 때 do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배적인지 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텍스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어 칼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어 단어는 꽤 일관적이고, selemaga 여기에 쓰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GM 6을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GM 6, 강의 6, 우리가 배운 것을 평가합니다. 간단히 요약하고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끝나면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1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 합니다 . 그리고 우리는 신학, 윤리, 성경 본문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세계관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요약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데자뷰가 있을 것입니다 . 약간의 반복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는 독서, 쓰기, 산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각각에 R을 사용하고 , 그에 대한 말장난을 합니다. 글썄요, 저는 그 세 개의 R을 가져와서 변형을 줍니다.

반복, 반복,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웁니다. 심지어 성경도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때때로 기억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성경 전반에 걸쳐 베드로서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물론 모세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이야기에서도 일어난 일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또한 세 가지 R이 있습니다. 즉, 읽고, 읽고, 읽으세요. 당신은 당신이 읽은 것입니다.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즐거웠으면 좋겠지만, 말하는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노트를 줬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연구, 연구.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종종 어린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의 책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표현이 방대하고 적어도 서양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6강, 우리가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있다면, 이번에는 수반되는 노트가 없을 것 같지만, 슬라이드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운 것을 요약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

이제, 그 중 몇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주권자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비밀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 그의 지시가 주어지는 곳, 법과 같은 체계화된 것뿐만 아니라 서사와 구원의 혈통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는 방식에서도. 신약은 구약과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가 있습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하라고 듣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하라. 이제, 분명히, 성경은 큰 책이고,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범주입니다.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것이 신의 뜻의 수행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으라는 말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로 계시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피곤해져서 성경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성경 숭배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신에 대해 가진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명확한 계시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고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우리의 주요 정보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탐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읽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매우, 매우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탐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텍스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전제와 생각과 전통을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여러분은 종종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시를 표준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제를 확인하는 용어와 씨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용어에는 신과 그의 창조물의 관계를 묘사하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령적 조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이든 창조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원래 회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추구하실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법령 부분은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권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주권은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명사입니다. 그는 주권적으로 일하는데, 그것은 그의 행동이지만, 섭리는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강의에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꽤 중요해요. 제가 오래된 고백에서 꺼낸 말이 있어요. 우연히 침례교 고백이에요.

이 침례교 신앙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따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것에 크게 의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누구의 이름이 붙었는지와 상관없이 서양 세계에서 꽤 흔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오래된 제임스 영어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의지의 조언에 따라 자유롭게 변함없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스스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며,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가 되지 않기로 계획하셨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죄와도 교제하지 않으셨으며, 피조물의 의지에 가치관이 제공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치관은 인간 경기장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항상 개입하기로 선택하지는 않으십니다.

아직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유도 아닙니다. 즉,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의했듯이, 당신의 의지의 견인력은 당신의 본성의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뭔가를 언급할 것이지만,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그의 지혜가 나타나는

곳, 그리고 그의 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능력과 신실함이 나타나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교회사에는 신과 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많은 변형이 있습니다. Open Theism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신이 정말로 미리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일어나는 대로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하다고 확신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하심으로써 그 일부인 많은 것들을 고립시키셨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되어야 하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인에 대한 것은,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많이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른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내와 애인이 침실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들어와서 두 사람을 모두 총으로 쏘 죽입니다. 누가 그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글썄요, 법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서약 위반의 원인적 측면과 그의 집에 침입한 사람은 어떨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만, 법적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입니다. 글썄요, 신의 창조물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기를 들이받아 사람을 죽이게 하시나요? 그들의 최악스러운 과도함과 술 취함, 고속도로의 잘못된 차선으로 들어가 가족을 몰살시키는 일에서요. 거기에는 인과적 측면이 있습니다. 신은 그런 인과적 부정적 섭리에 개입하는 것을 자주 선택하지 않습니다.

2차 원인에 대한 문제는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유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2차 원인에 대한 문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정의하고, 그의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단순한 주권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물을 다루고 관리하여 인간적 측면이 자신이 설계한 것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급여 등급보다 훨씬 높고, 아마도 제 급여 등급보다 높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읽었지만, 이것은 매우 깊은 수준의 철학적 신학입니다.

교회는 여러 차례 그것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적 의지는 확립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 주권을 얻었습니다.

잠깐 이것 살펴보죠. 신의 결정은 신의 영원한 조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학 책에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그의 세상을 위해 미리 정한 것. 미리 정한다는 것은 그저 무언가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니다. 미리 정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

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미리 정하셨고, 우리가 언급한 다른 것들과 아마도 계획 안에 있는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의미하는데, 신이 그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복잡한 망입니다.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리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우리가 보고, 일부는 사후에 보고, 일부는 윤리와 우리의

도덕적 행동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측면에서 예측됩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위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섭리는 신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신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용어들을 합칩니다. 사람들이 프로비던스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항상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태와 활동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기에 좋을 것 같은 본문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28~30절입니다. 이 특정 본문에 대해 풀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매우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것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박해받는 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좋은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설명하고 풀어야 하지 않나요? 그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선을 위해 함께 일하십시오. 화형당하고, 참수당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난 모든 순교. 어떤 사람들은 지난 50 년 동안 기독교 세계에서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중동의 특정 국가 등에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제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은 멈추어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세요, 29.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 그는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미리 안다는 단어를 읽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어떤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신다고 여겨지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신이 그것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명령에 포함시켰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의 용어이며, 그가 그것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미리 안다는 것은 단순히 미리 아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목적,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에 따라 형성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음을 주목하세요.

그의 아들의 이미지는 윤리적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적 이미지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명성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사슬이 있습니다. 그는 예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결정적 주권이 그가 성취할 어떤 것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의 대부분을 사후에 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에는 또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9~11장은 12장에 도달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방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깊고 풍부하고 지혜와 지식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경이로움에 앉아 있고 때로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욥은 더 잘 싸우기 위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은 욥을 겪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원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그 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의 조연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그에게 선물을 주어 그가 깊음을 받도록 했습니까?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향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 나니 ,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받았을 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 발에 등불이요,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은 창조물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는 특정한 작업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의 와중에 그는 인간의 자유의 특정한 측면, 인과관계의 특정한 측면을 계획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신학적 분석을 설명하고 야기하는 것이 매우, 매우 섬세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른 방식으로 탐구하도록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가 본 핵심적인 관찰. 신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언제?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끔찍한 물리적 악을 보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이든, 미국 서부 캐롤라이나의 홍수든,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른 많은 곳의 쓰나미든 말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한 끔찍한 파괴를 봅니다. 즉, 자연이 개입합니다.

신을 놀라게 하지는 않지만, 신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 개입하기로 여러 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경배하는 영원한 신이라는 생각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통제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창조적인 구성입니다.

기억하세요, 직접적인 가르침, 암시적인 가르침, 창조적인 구성물. 구성물에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인 것과 암시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많은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은밀한 것들은 주님께 속합니다. 계시된 것들은 우리에게 속합니다. 이제 선언에 대한 진술이 그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목하세요.

그것은 여기로 돌아와서 , 제가 슬라이드 5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나 2차 원인의 자유 또는 우연성은 사라지지 않고 확립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학적 성찰에서 생각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더 생각해 볼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 그의 윤리,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잠시 후에 볼 고린도전서 2장 솔루션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냥 계속해서 그걸로 갈 것입니다.

이건 데자뷰 입니다 . 우리는 이걸 여러 번 봤습니다. 신은 영원한 과거에 존재했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죄로 몰았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구원의 역사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왜곡을 통해 보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다양성의 많은 부분에 대한 답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의 우산 아래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종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전서 2:6-10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살펴볼 것이지만, 지금 바로 그 구절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읽고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슬라이드를 보고 본문을 읽으면 준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변명을 제시합니다. 변명은 자신의 변명,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고린도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복음인 이유에 대한 논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이것은 1-4장의 절정과 같은 것으로, 그가 전파하는 복음, 그가 교회에 전하는 진리가 단지 그의 밝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6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러나 성숙한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를 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아니어서 사라질 운명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숨겨진 지혜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시대 이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 중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기록된 대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주목하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상상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그것이 천국에 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국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인식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구절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 신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감각은, 인식론의 근원이 감각, 눈, 귀, 마음, 정신, 이성을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에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는 방대합니다. 저는 결국 여러분에게 참고문헌을 주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저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월터 카이저의 기사가 있는데, 그는 이 텍스트를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기사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은 아마도 가장 덜 쓰이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읽지 않은 10절을 보세요.

아마 내가 읽었던 것 같아. 하느님께서 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어. 이제, 이건 나한테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공동체입니다. 2, 6 앞과 2, 16 뒤의 대명사를 보면 나, 너, 나, 너, 나, 너이지만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1인칭 복수입니다 .

우리는 사도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바울이 2장 6절에서 16절에서 말한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권위 있고 중요한 이유인데,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도 공동체에게, 성령을 통해 성경을 주시는 자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록에서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나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도 공동체에

게시하셨으므로 우리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성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또 다른 큰 주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본 그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가 거듭 말했듯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게다가 인간 윤리에 질서를 제공하죠.

유대-기독교적 가치관은 성경이 특히 지배적이었던 서구 세계와 어느 정도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에서 많은 것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 분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성경에 담겨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인간 윤리를 변화시킵니다.

최근까지 미국의 많은 지역은 유대-기독교 윤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조차도 그 윤리를 상당 부분 따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문화가 세속화되면서 그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이해해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 교단에 앉은 사람들, 설교단에 있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교단에 앉은 사람들은 듣는 법뿐만 아니라 스스로 연구 자료를 읽어서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은 시간, 가족, 직장 측면에서 다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배워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의 순종의 영역은 신의 도덕적 의지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비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알아낼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신이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의지가 질문합니다.

이것이 많은 Will of God 문학과 토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제가 당신에게 성경을 건네줄 때, 저는 당신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건네준 것입니다. 그것을 탐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육체적'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 암시적, 창조적 구성입니다. 기독교 세계에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다양성이 많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인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삶을 명령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우리가 텍스트 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적인 현실입니다. 더욱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장려하는 텍스트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알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21장의 신약성경 본문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진술을 합니다.

티레 에서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형제들, 즉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인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외톨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형제들은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출발하여 카이사레아로 갔습니다. 우리는 일곱 형제 중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예언하는 미혼 딸이 네 명 있었습니다.

글쎄요, 여성도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여러 날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발과 손을 묶었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림과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 미래를 말하는 진정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나머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계약이 만료되어 결국 로마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즉 바울이 가르치던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와 그곳 사람들은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여기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래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의 자유는 빼앗길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잠깐만요. 그럴까요? 그래야 할까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15절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울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득당하지 않자 그들은 멈추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성취하고 이방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도덕적 의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에게 이 행위를 행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미래를 알고 미래가 가리키는 것을 거부했지만 복음에 대한 그의 헌신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아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당신의 결정을 바꿀 것이라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바울은 진보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진보된 지식은 의사 결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사 결정의 다른 측면, 가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의해 압도됩니다. 그러니 미래를 안다면 이미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지워버리세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지금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나도 지금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개인적 뜻은 하나님의 주권에 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 뜻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싸여 있지만,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 그것을 알아내라는 말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근거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10,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문장에서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개인적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저 성경을 그들에게 밀어붙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텍스트는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미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장려하는 텍스트는 없으며, 우리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형은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한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변형된 마음의 산물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입니다.

데자뷰 처럼 들릴 겁니다 .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에서는 반복을 계획해서 강의를 끝날 때쯤에는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글썄요, 이번에는 좀 더 행복한 스틱맨이 있지만,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를 관통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다른 쪽에서 의미를 끌어냅니다.

변화된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사결정의 열쇠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슬라이드 번호 13.

우리는 삶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걱정해 직접적으로 답하는 성경 본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문화는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홀로 두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구식이 아닙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있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방식으로 관련성이 있고, 피상적인 증거 본문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질문이 많고, 우리는 영적 편의주의가 아닌 복잡한 세계관과 가치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다룹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질문에 대한 정보를 성경에서 규율 있게 검색하여 이러한 것들을 다룹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글썄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모델을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에 적용하여 삶의 문제를 분별합니다. 우리는 텍스트에서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이성적 노선을 개발합니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강조해야 할 게 있습니다. A에서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성적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A 지점에서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이성적 노선이 있고,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에는 선이 있습니다. 지혜는 능숙한 삶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설명이 항상 정말 정교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빛 속에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찾지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그럼, 우리 연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몇 가지 반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제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제시하신 방식으로 여러분을 위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의식적인 숙고를 통해 지금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는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의식적인 숙고.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뺏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답을 비교해야 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큰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하고, 미안합니다. 저는 그것에 가입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신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당신은 그것에 지원했습니다. 군대와는 다릅니다. 당신은 지원했고, 그것이 당신이 맡아야 할 역할입니다.

원하신다면 농부의 은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인생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과정이 우리의 길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저 기도하고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시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을 때 구원 역사에서 일어났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당신이 내리는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야, 그건 나한테는 끝났어. 나는 주당 50시간 일해.

난 그냥 지쳐버렸어. 난 그걸 지탱할 수 없어. 글썄, 난 그걸 이해해.

하지만 인생의 어느 곳에서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 또 다른 부분은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는 이 진술에 따라 부적절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받지 못한 목사를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글썄요, 하지만 그들은 찢린 손으로 안수받았어요, 역사 속 한 사람이 말했듯이요. 글썄요, 그거 좋네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알지만 제한적인 방식으로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일반적인 진리를 도덕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평범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귀를 간지럽히는 교회, 좋은 교회를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특정한 방식으로 듣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당신이 밀어붙이고 질문하면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항상 즐겼던 자신의 사고방식에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소크라테스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아시죠,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저는 많은 질문을 받았고, 적어도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체계.

이 과정은 우리의 길을 제공합니다. 이제, 충분히 말했고, 저는 여러분을 이 길로 돌아오기 위한 온갖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GM 6과 관련이 있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GM 7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차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목차에 있는 제 진술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우리의 많은 질문들이 그 문제를 직접 다루는 성경 본문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의 또 다른 측면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세계관과 가치에 대해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글썄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글썄요,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글썄요, 우리는 특정한 적절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적 가치 모델에 따라 우리의 문제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분별력으로, 이 세계관과 가치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데자뷰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 몇 강의에서 더 깊이 있고 더 설명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7, 8, 9, 10강.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게 보낼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1강에서 14강까지의 주관적 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유익을 얻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길 기도하세요.